



광주시장 후보 7명 등록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광주시장 후보 7명이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등록을 한 뒤 등록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정재,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강운태·이용섭·이병완 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천 갈등에 계파 싸움 기득권에 껌인 '호남 安風'

1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호남에서의 안풍(안철수 바람)은 좀처럼 불지 않고 있다.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노풍(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호남 민심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안풍에 주목했지만 현재까지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등 공천 갈등으로 호남 민심으로부터 역풍마저 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풍의 현주소를 조명해본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경선 안철수계 참패 광주 전략공천으로 역풍...경쟁력·물갈이 다 날려 安 대선가도 광주시장·영남지역 선거 결과에 달려

◇공천 참패=이번 호남지역 지방선거 공천에서 안철수 진영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안풍의 동력 확보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윤장현 후보만 전략공천을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전남지사과 전북지사 경선에서 안 대표 측 인사들은 큰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서도 공천장을 손에 쥔 안철수 대표 진영 인사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인재 풀 등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구 민주당 비주류나 정치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신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경선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략 부재=지방선거 공천에서 호남 민심을 뒤흔들 수 있는 개혁 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풍의 위력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현역 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보다 냉정한 직무평가를 통해 과감한 물갈이가 이뤄졌다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호남 기득권과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면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없이 경선이 진행되면서 민주계 현역 국회의원들과 현역 단체장들이 장악한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평가다. 안철수의 진심이 호남 민심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리한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과 공천 갈등은 호남 민심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풍의 미래=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안풍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동력이 아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론 심판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장 선거 결과도 안풍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략공천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패배할 경우, 안철수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상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영남지역 지방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영남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건질 경우, 안철수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주기가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흠집이 생긴 새정치 가치를 복원하고 정권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현역 단체장 불패...옛 민주계 완승

새정치연합 전남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공천 분석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15일 목포시장 후보로 이상열 전 국회의원을 확정하는 등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 공천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전남도의회 목포2선거구에 권욱 후보를 확정하는 등 도의원 최종 후보 경선도 마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1~2명의 여론에 따라 기초단체장 후보가 갈리는 등 박빙 승부가 연출됐고, 전남도의원 선거에서는 현직 등 재선을 노리는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현역 단체장 강세=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전남 13곳과 단수추천된 9곳 등 22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출했다.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사실상 공천 후보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경선에서 나주시장 강인규 후보, 광양시장 김재무 후보가 등 13명이 선출됐다. 앞서 곡성 유근기 후보, 장성 김양수 후보, 강진 강진원 후보 등 9명이 단수추천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다. <표 참조>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특징은 현직 강세와 옛 민주계의 완승으로 요약될 수 있다.

목포, 광양, 완도 등 3선 제한 지역이나 현역 무소속 출마 또는 불출마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역 단체장이 모두 경선을 통과했다.

안철수계는 여수 주철현, 영암 전동평 후보가 체면을 유지했다. 특히 주 후보는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2차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서로 나눠 갖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첫 여론조사에서는 주 후보 49.96%, 김 전 의장 50.04%로 김 전 의장이 우세였지만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도의원 50개 선거구

재선 비율 크게 늘어날 듯

주 후보 56.53%, 김 전 의장 43.47%로 주 후보가 역전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회 재선 도전 강세=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도의회 경선에서는 현직과 재선을 노리는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총 52개 선거구 중 이번에 선출된 50개 선거구(2개 선거구 재선)에서 현직과 과거 도의원을 지냈던 후보 22명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됐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현직 도의원을 포함하면 본선에서의 재선 당선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치러진 제9대 전남도의회 선거에서 재선 비율이 30%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대폭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목포 강성휘(1선거구)·권욱(2)·황정호(3)·김탁(4)·배중범(5) ▲여수 이광일(1)·최대식(2)·서정현(3)·주연창(4)·이경미(5)·서일용(6) ▲순천 김기태(1)·정병희(2)·서동욱(3)·한택희(4) 박동수(5) ▲나주 이민준(1) ▲화순 문행주(1)·민병홍(2) ▲광양 이용재(1)·김태균(2)·강정일(3) ▲구례 고택음 ▲함평 임용수(1)·노종석(2)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시장·군수 후보

선거구	성명	연령	대표경력
목포	이상열	63	제17대 국회의원
여수	주철현	55	변호사
순천	허석	51	국가균형발전위 위원
나주	강인규	59	정당인
광양	김재무	55	전남도의회 의장
담양	최형식	60	담양군수
장성	김양수	65	장성군수
구례	서기동	66	구례군수
고흥	박병중	61	고흥군수
화순	구종근	56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장흥	이명홍	66	장흥군수
강진	강진원	56	강진군수
완도	신우철	62	해양수산과학원장
해남	박철환	56	해남군수
진도	이동진	70	진도군수
영암	전동평	54	제 4·5·6·7대 도의원
무안	김철주	58	무안군수
영광	정기호	61	영광군수
함평	안병홍	68	함평군수
신안	박우량	60	신안군수
보성	정종해	67	보성군수
곡성	유근기	51	전남도의원

또 ▲영광 이동권(1)·이장석(2) ▲장성 윤시석(1)·이준호(2) ▲고흥 송형근(1)·박금래(2) ▲보성 임영수(1)·임명규(2) ▲해남 명현관(1)·김효남(2) ▲완도 이철(1)·이경동(2) ▲진도 장일 ▲장흥 이충식(1)·김광준(2) ▲영암 김연일(2) ▲무안 이승훈(1)·정연덕(2) ▲곡성 조상래 ▲신안 임흥빈(1)·정연선(2) ▲강진 광영체(1)·윤도현(2) ▲담양 박철홍(1)·전정철(2) 후보로 정해졌다.

한편 새누리당 전남도당도 최근 고흥군수 김경준 후보, 무안군수 오원욱 후보를 각각 확정하는 등 도의원 3명, 기초의원 6명의 후보를 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59 호남예술제

1956-2014 제59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4. 4. 23(수) ~ 6. 28(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4. 5. 13(화) ~ 5. 16(금)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 4월 23일(수) ~ 5월 29일(목)

참가부문 |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접수방법 | • 방문신청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시상 |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62**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영광군**

협찬 **SAMSUNG** 삼성생명